

변화하는 북한의 체육 정책

권경복 / 내외통신 기자

최 근 들어 북한 체육계에는 붐기운이 완연하다.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과 더불어 '喪中' 임을 명분으로 내세워 움츠러들었던 북한의 체육 정책이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을 계기로 김정일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라 최근 변화의 소용돌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김정일이 농구 장려 등 체육 각 부문에 대한 개별적인 지도를 해나가는 한편, 체육 용어를 국제 공용어로 쓸 것을 지시하기도 하고 유망 선수들의 조기 발굴 노력과 각종 체육 대회를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예전과 달리 눈에 떨 만큼 커다란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 그동안 노동력 확보와 군사력 강화의 일환으로 강조해왔던 '체육'이라는 어의적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즉, 북한이 체육을 "신체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며 집단주의 정신과 혁명적 동지에, 굳센 의지, 규율 준수에 대한 자각성과 책임성 등 고상한 사상과 도덕적 품성을 배양함으로써 국방력을 강화하고 수행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하는 기초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선수

의 해외 프로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그것도 김정일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은 분명 변화 도상에 있는 북한 체육 정책의 현주소를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북한 체육 정책 변화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김정일이 직접 체육 부문을 챙기고 있다는 점이다. 1997년말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이 밝힌 바에 따르면, 김정일은 이전부터 "우리는 체육 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체육의 모든 종목들에서 먼저 아세아의 패권을 쥐고 나아가서 세계의 패권을 쥐으로써 우리나라를 '체육의 왕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정일은 지난 1995년 2월 북한이 국제 프로 권투 무대에 입문하면서 구성된 국가종합팀의 경기를 직접 관람하고, 이 경기에 출전한 리광식, 조성철, 리영호 선수에게 각각 금시계를 선물하고 격려했다.

1996년 들어서는 1월 제1차세계군인체육대회(이탈리아)에 참가한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를 접견·격려하고, 4월에는 우리의 상무팀에 해당하는 인민군 소속 4·25국방체육선수단을 현지 지도해 체육 발전과 관련한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김정일은 1997년 8월에는 북한 최초의 프로 농구팀인 압록강체육선수단 남자농구팀 '태풍'과 여자농구팀 '폭풍'의 팀 명칭을 직접 지어주었으며, 10월에는 김일성종합대학교 창립일(10.1)을 맞아 이례적으로 김일성대학과 김책공업대학간의 농구 경기를 관람했다.

이외에도 김정일은 지난해 세계적인 수준으로 알려진 여자 축구의 발전과 관련한 지시를 내리고, 특히 제11회 아시아여자축구선수권대회(1997. 12. 중국 광주)에서 꼭 우승해야 한다며 훈련 기재와 의료진 및 기술진까지 보내주는 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북한 체육 정책의 변화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 각종 국제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려 애쓰는 흔적에 있다. 지난해 1월 「로동신문」은 “경애하는 장군님(김정일)께서는 최근 우리나라 체육 발전에서 강령적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국제 체육 공용어를 잘 살려 쓸 데 대하여 가르치시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축구의 경우 손다치기는 '핸드' (handling)로, 11미터발차기는 '페널티 키크' (penalty kick)로, 구석차기는 '코너 키크' (corner kick)로 고쳐 사용할 것을, 권투의 경우에는 경기 시작을 '박스' (box)로, 서로 상대방을 때어놓을 때는 '브레이크' (break), 경기를 멈출 때는 '스톱' (stop)으로 통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이 그동안 언어에서의 주체 확립을 내세운 이른바 '문화어 정책'을 통해 스포츠 용어에 있어서도 국제 공용어를 철저히 배격해왔음에 비추어볼 때, 스포츠 고립화에서 벗어나 국제 스포츠계에 복귀하고 외국과의 스포츠 교류에 대비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자리매김됐다.

또 지난 1992년 알베르빌 대회 이후 6년 만에 제18회 나가노동계올림픽(1998. 2.8~22)에 참가한 것이나, 세계 농구계의 최장신 센터인 리명훈(232 cm) 선수를 미국 NBA에 진출시키려 하고 있는 것, 내년에 개최될 제3회 월드컵축구대회(미국)에 대표팀을 파견키로 한 것, 올 12월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게임과 2000년 시드니올림픽 아시아 예선의 출전을 확정된 것 등도 국제 스포츠 무대에의 접근을 희망하는 북한 당국의 의지의 결과이다.

한편, 각종 체육 대회와 체육 부문 연구기관을 신설, 경기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내 체육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만도 8월에 농구를 단일 종목으로 하는 첫 전국 규모의 대회인 '8·28 청년컵쟁탈농구경기대회'를 신설했으며 12월에는 김정숙(김정일의 생모)의 80회 생일(12.24)을 기념하는 '오산덕상체육경기대회'를 신설했다.

특히, 오산덕상체육대회는 기존의 대회들과 마찬가지로 평양과 각 지방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 대회가 신설됨으로써 북한은 백두산상(2.16 김정일 생일 기념 개최)·만경대상(4.15 김일성 생일 기념 개최)체육대회와 함께 이른바 '3대 장군'이라고 선전하는 김일성·김정일·김정숙을 기념하는 체육 대회를 모두 탄생시켰다.

북한은 또 체육의 대중화 및 활성화를 기하고 체육 부문에 필요한 기자재와 공급 물자의 생산 문제 등을 규제함으로써, 체육 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를 뒷받침하기 위해 작년 5월 「체육법」(총 6장 54조)을 제정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체육의 과학화 방침을 강화하기 위해 1995년 체육과학원을 신설하고 종전의 정무원 국가체육위원회 소속 체육과학연구소를 체육과학원 산하로 편입시키는 동시에, 체육기자재연구소, 체육과학병원 등을 부설시키고 200여 명의 연구원을 배치, 체육 발전을 위한 과학적이고도 체계적인 연구 및 기술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연구소에서는 구체적으로 "아시아패권을 잡기 위한 남자 마라톤 모형과 훈련 조건을 위한 선수 상태 검열 지표에 관한 연구", "종목별 특기 선수 육성과 관련한 연구"를 비롯한 과제를 선정하고 세계 체육의 발전 추세를 연구하며, 종목별 특성에 맞고 세대 교체에 따른 새로운 훈련법도 개발하는 등 체육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플랜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축구를 비롯한 일부 종목의 젊은 유

망주들을 해외에도 파견, 외국에서 선진 기술 습득 및 실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체육 정책의 변화는 일부 종목이기는 하지만 프로화를 모색하고 있고, 그동안 '착취 계급이 만든 부르주아적 스포츠'라고 비난해왔던 경기들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데서도 목격되고 있다.

프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은 권투와 농구이다. 권투의 경우에는 이미 1992년 7월에 프로권투협회를 창설하고 이듬해인 1993년 4월 김일성의 81회 생일을 맞아 평양 청춘거리 중경기장에서 최초의 프로 권투 경기를 개최한 바 있다.

물론, 경기력 면에서는 한국의 수준에 비해 훨씬 못한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모두 9개 선수단 67명에 이르는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예선 3분 4회전, 준결승 6회전, 결승 8회전을 치르는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됐고 한복 차림의 라운드걸이 등장해 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를 계기로 북한은 1995년 12월 WBC총회(태국)에서 155번째의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현재 북한 프로권투협회에는 300여 명의 선수들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6년에는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최철수, 김 혁, 최평국 선수가 일본을 방문, 프로데뷔전을 치렀고, 올해 1998년부터는 국제 무대에 적극 진출할 예정인 것으로 지난 2월 나가노 IOC총회에 참석한 북한 올림픽위

원회 서기장 장 응이 밝힌 바 있다.

권투보다 더 프로화에 적극적인 경기 종목은 다름아닌 농구이다. 세계 최상신 센터인 리명훈을 지난해부터 미국 NBA에 진출 시키려고 노력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명훈에 고무되어 북한은 1997년 중순부터 프로농구팀을 창단하고 주로 외국팀을 초청해 경기를 벌임으로써 경기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

지난해만해도 남자의 경우 압록강체육선수단 '태풍' 팀이 창단된 것을 비롯해 여자의 경우에도 준프로라고 할 수 있는 '번개', '폭풍', '대동강' 여자농구선수단이 북한을 방문한 쿠바, 중국, 러시아, 불가리아 등의 선수단과 친선 경기를 벌여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북한의 선전 매체들이 전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이 그간 배타시해왔던 볼링이나 골프, 야구 등 일부 종목들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대목도 변화된 모습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 가운데 볼링만 예를 들어보면, 북한은 1991년 6월에 이미 김정일의 지시로 평양시 대동강변 옥류교 입구에 볼링장 건설에 착공, 40 라인 규모의 평양볼링장을 완공했다.

이를 기점으로 1996년부터는 평양에서 볼링동호인대회를 개최, 아마추어 볼링 동호인의 저변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매체들에 따르면 이 동호인 대회에는 청소년·학생들로부터 가정 주부, 70세 이상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

이 참가했다고 한다.

물론, 이들 종목을 육성하고 관련 시설들을 건설하는 목적은 주민들의 여가 선용 방편이라기 보다는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각종 국제 경기 대회에 대비, 전문 선수 양성과 함께 방북 교포 외국인들의 레저 시설로 활용함으로써, 폐쇄 이미지를 불식하고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측면이 농후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외에도 체제 우월성의 과시라는 측면에서 엘리트 체육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반드시 북한 체육계의 변화를 가늠하는 잣대라고 볼 수는 없으나, 현재 북한의 체육 정책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단면이 되고 있다.

80년대 후반 들어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이 붕괴함에 따라 체육 선수들의 국제적인 성적까지 동원해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상징하는 징표로 내세우고, 이들의 지명도를 활용,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측면은 최근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각종 국내·국제 대회에서 따낸 금메달에 대한 대접이 '짹짹' 해지고 있는 것만 보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우선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처럼 규모가 큰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게 되면, 각종 영웅 칭호를 수여하고 일반 주민들은 상상키 어려울 정도의 고급 주택과 외제 승용차를 제공하고 있다. 또 노동당에 가입할 수 있는 특전을 부여하며 정식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도 준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1996년 애틀랜타올

림픽 레슬링과 유도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한 김 일과 계순희 선수이다. 김 일은 북한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북한 최고의 상훈으로 일컬어지는 '노력영웅' 칭호를 받았다.

참고로 북한에서 체육인들에게 수여하는 상훈으로는 체육명수, 공훈체육인, 인민체육인 칭호가 있는데, 공훈체육인은 아시아선수권대회나 아시안게임 등에서 메달을 획득한 경우에, 인민체육인은 세계선수권대회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경우 혹은 세계 신기록을 작성한 경우에 주어지는 상훈이다.

계순희는 처녀 출전한 국제 대회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 체육인으로서의 최고의 칭호인 '인민체육인' 칭호를 받는 한편, 귀국 직후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를 선물받았다. 그녀는 또 1996년 11월 북한이 매월 해외에 배포하는 선전 화보 「조선」誌의 표지 모델로도 캐스팅되는 행운을 차지했다.

올림픽 금메달 덕택에 김 일과 계순희는 북한이 연례적으로 선정하는 1996년도 '최우수선수들'에 뽑히는 영광도 함께 누렸다. 덧붙여 북한의 최우수선수들은 1년간의 성적을 기준으로 통상 10 명이 선정되는데, 1996년의 최우수선수들은 이들외에도 김명남(역도, 애틀랜타올림픽 은메달), 배길수·김현일(이상 체조 안마), 전철호·리영삼(이상 레슬링, 애틀랜타올림픽 동메달), 옥선경(여자 역도, 제28회 아시아선수권 금메달), 배동숙(여자 유도, 제10회 아시아선수권 금

메달), 리명훈(농구) 등이었다.

또 북한 사격계의 기대주인 정용원 선수의 경우에는 1995년 국내 대회인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에서 비공인 세계 신기록을 수립, "장군님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의하여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원이 되는 영예를 지녔다"고 선전됐다.

이들처럼 북한은 앞으로도 체육 부문에서의 유망주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중반 14~19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장신자경연'을 시·군 경연→도 경연→중앙 경연의 3단계로 진행했다.

이 경연에서는 연령별로 최대의 신장을 산출, 예를 들어 남자의 경우 14세는 170 cm 이상, 15세는 175 cm 이상, 16~17세는 180 cm 이상, 19세는 190 cm 이상의 장신자들을 선발해, 각 종목별로 유망주들을 조기 발굴하려는 목적을 갖고 진행돼 그 결과와 향후 모습에 관심이 집중됐다.

어쨌든 북한은 이미 올해 개최될 아시안 게임에 대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한 것을 비롯, 2000년 시드니올림픽 아시아 예선 경기와 각종 국제 대회에 출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대표팀의 잇따른 국제 대회 출전으로 남북간의 접촉이 많아질 것은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남북 체육계의 만남과 교류가 향후 남북 관계 전반에 어떻게 파급될지가 오히려 주목되고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9**